



EMPORIO  ARMANI
SWISS MADE
DESIGNED IN MILAN. CRAFTED IN SWITZERLAND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8
vol.179



Cartier
HIGH JEWELLERY COLLECTION



BVLGARI
R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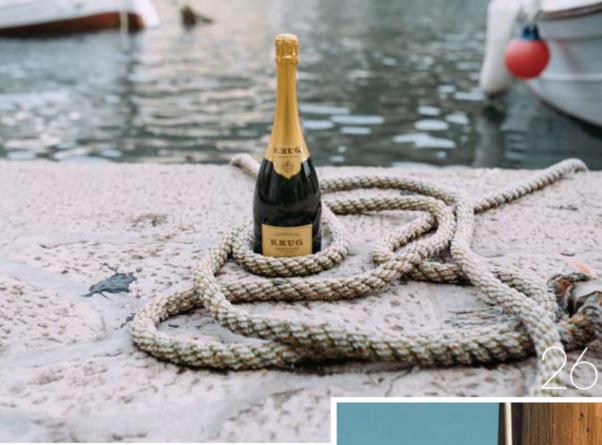
DIVAS' DREAM
BVLGARI.COM

GUCCI





 *Loro Piana*



표지에 등장한 것은 18K 핑크 골드, 코랄, 오톨스, 블랙 라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카르띠에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이다. 세계 최고의 주얼리 & 워치 마스터 카르띠에는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특별하고 희귀한 스톤을 수집해 잘 짜맞추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문의 1566-7277



12

30

- 16 **레스토랑 미식 문화는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해왔을까?** 프랑스 요리 에 대해 어떤 이미지와 선호도를 지니고 있는, 어떤 장르의 요리를 하든, 예술의 경지에 비유되는 미식(gastronomy)의 세계에서는 그 영향을 받지 않기가 힘들다. 미식 문화를 둘러싼 체계와 문법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전문가가 말했듯이 이제는 프랑스 요리의 이상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느냐가 아니라 '기본'은 갖추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이고, 음식 지도의 지평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풍요로운 환경을 찾아보는 건 우리가 미식을 대할 때 느끼는 즐거움에 조금은 보탬이 될 듯하다.
- 18 **SUPER CLASSIC** 매년 등장하는 새로운 워치 중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클래식을 기반으로 전통성을 잃지 않고 업그레이드되는, 고전미를 담은 모델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반영한 신제품.
- 20 **BRILLIANT WONDER**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완벽한 타일로 아름다운 가치를 한 차원 끌어올린,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 22 **BE ONLY YOU** 자유로운 관념, 삶을 예술로 생각하는 자세, 남성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한 새로운 메이크업 컬렉션, 보이드 샵.
- 24 **IT JACKET** 차분한 가을 색의 조화, 따뜻하고 포근한 소재의 믹스 매치로 완성한, 남성을 위한 가을 아우터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 26 **SAVOR THE MOMENT** 오랜 세월 무수히 많은 이들로부터 밀도 높은 팬심을 누려온 프레스티지 샵인 브랜드 크루그(Krug),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크루그가 올라갈 서울에서 팔리고 있는 푸드 페어링 프로젝트 KRUG X FISH의 미각 향연을 소개한다.
- 30 **AUTUMN TRAVELER** 황량함마저 매력적인 가을에 떠나는 여행, 2018 F/W 맨즈 웨어 컬렉션.
- 38 **MODERN CLASSIC** 전통적인 실루엣에 컨템퍼러리한 감성을 불어넣어, 다채로운 소재와 컬러 팔레트의 조화가 돋보이는 특유의 유연한 스타일링으로 완성한 실버토레 페라기모의 2018 F/W 컬렉션.
- 42 **PLAY LUXURY** 2018년 8월 17일, 에르메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매장의 새로운 단장을 기념하는 즐거운 축제가 열렸다. 누구나 동경하는 브랜드, 에르메스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특별하고 남달랐다.
- 43 **STREET COUTURE** 오버제는 가장 동시대적인 패션 키워드 '스트리트 쿠티어(street couture)'를 테마로 매거진 편집장과 포토그래퍼, DJ, 모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13인의 인물쿠언사와 함께 런던, 베를린,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오버제의 2018 F/W 컬렉션을 당시의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누리보길.
- 44 **ADVANCED BEAUTY** 바빠서 피부 관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하루에 단 10~20분만 투자하면 피부 탄력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보디 셰이프를 매끈하게 가꿀 수 있는 특급 비결이 여기 있다. 여배우들의 피부 관리법으로도 잘 알려진, 집에서든 클리닉 시설도 없애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다.
- 45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가을 뷰티 뉴 컬렉션.

FENDI.COM



Style 조선일보

Issue.179 October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경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티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

Hot Spot ALL TOGETHER NOW

취향 있는 라이프스타일 제단, 더 캐시미어 플래그십 스토어

고급 소재로 손꼽히는 캐시미어만큼 세련되고 럭셔리한 취향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신사동 도산공원 앞에 리뉴얼 오픈한 '더 캐시미어(the CASHMERE)' 플래그십 스토어다. 지난해 1개 층만 오픈했던 더 캐시미어 도산점의 2층, 2.5층, 3층까지 확장해 플래그십 스토어로서 새 단장을 마친 것. 더 캐시미어는 합리적이고 지적인 소비자에게 일화성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간결하고 활용도 높은 디자인과 캐시미어가 주를 이룬 편안하면서도 하이 퀄리티의 토털 웨어를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플래그십 스토어 1층에는 더 캐시미어 여성·남성 의류 & 액세서리 라인과 함께 카친, 배스, 베딩 등 홈 컬렉션으로 구성된 더 캐시미어 핑스가 자리 잡고 있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철학과 가치를 전달할 예정. 2층은 더 캐시미어 키즈 라인의 단독 공간으로, 기존에 숨어 있던 개념으로 선보였던 키즈 라인을 보다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더 캐시미어 키즈의 경우 연령대와 제품군을 확장하고 학용품 및 완구 등 더 캐시미어의 감각으로 셀렉트한 다양한 비잉 상품도 소개한다. 국내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인 바치(Bacci)와 협업해 선보이는 옷장, 서랍장 등의 키즈 전용 가구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오직 더 캐시미어 도산점에서만 선보이는 스페셜 에디션이다. 2.5층은 더 캐시미어 핑스의 라빙 라인과 반려동물용을 위한 핑 제품으로 구성했다. 이곳에선 덴마크 가구 브랜드, 칼 한센 & 선(Carl Hansen & Son)의 다이닝 체어를 비롯해 라운지 체어, 소파까지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3층은 익스클루시브 라빙을 비롯해 라운지와 테라스를 마련해 방문 고객에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함까지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남루노스는 물론 반려동물까지 즐길 수 있는 상품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더 캐시미어 플래그십 스토어. 앞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당신의 삶에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길. 문의 02-518-6980 에디터 권유진



Jewel UNIQUE FLOWER

기하학적인 매력을 담은
플라워 컬렉션 주얼리.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선인장 꽃의 독특한 볼륨감을 표현한 각투스 드 카르파에 링 1천9백만원, 카르파에, 신주로 꽃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실크 네크리스 4백만원, 타사키, 우아한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카멜리아 네크리스 가락 미장 사슬 1천만원, 다이아몬드 종이꽃을 표현한 파피 플라워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 플라워 펜던트 1천만원, 종이 꽃의 외곽 선을 표현한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오픈 플라워 링 6백만원, 모두 타사키, 에디터 배미진



Beauty RED PARADISE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레드에는 없다. 당신의 가을 룩에 에지를 더할 메드한 파니시를 선사하는 레드 립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번 가을에도 역시 레드 컬러가 눈에 띈다. 하지만 극도로 매끈한 것이 포인트 몇몇 뷰티 하우스에서는 매트 파니시를 강조하기 위해 케이스까지 무량으로 바꿔버렸다. '샤넬 루주 입마르 벨벳 액티브 매트 #116'가 그중 하나로, 매끈한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 아이코닉한 유광 블랙 케이스를 블랙 매트 케이스로 바꿨다. 천연 리아스 피우다와 마그네슘이 함유된 매트 텍스처를 뽐낼 뿐 아니라 부드러운 메이크업 느낌을 선사한다. 대담한 브릭 레드 컬러로 당시에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안겨줄 것. 3.5g 4만3천원. '맥 레트오 매트 립스틱 #116'은 알량 촉감 립스틱과 표현할 만큼 레트오 매트 컬러의 장점이 강렬하고 차가워 보이는 세시한 핑을 연출해준다. 론칭 이후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랑받는 베이스 컬러이기도. 3g 3만원. 새콤달콤한 핑을 입은, '니콜 루즈 디올 울트라 루즈 #999'는 디올 하우스의 코드와 정수를 담은 동시에 전설적인 하우스 아카이브 룩을 모던하고 시크한 레드 색상으로 재해석해 선보였다. 레드 컬러에 대한 열정과 찬사로 완성한 다양한 레드 팔레트 중 #999는 디올의 가장 상징적인 레드를 표현한 컬러로 소장 가치가 뛰어나다. 3.2g 4만3천원. 그런가 하면, 크로자오 이브나 에서는 첫선을 보이는 매트 립스틱 '크로자오 이브나 마니 인아르 #400'을 위해 브랜드의 상징적인 강렬한 레드가 아닌 매끈한 블랙 핑을 강조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넣는다는 매혹적인 15가지 컬러로 선보이는데, 블루 핑이 살짝 감도는, 타 브랜드에선 볼 수 없는 유니크한 레드 색상의 #400 컬러는 당신의 레드 립 핑터를 충족해줄 것이다. 4g 4만4천원. 우아한 골드 룩을 입은 브랜드도 있다. '비비 브라운 렉스 매트 립 #115 레드 키켓'은 우아한 무량 골드 룩을 입고 여성들이 원하는 우아한 매트 텍스처를 뽐낸다. 보이는 그대로의 컬러로 발색되며, 컬러 피우다와 촉촉한 오일이나 안 바를 듯 가벼우면서도 건조하지 않는 신개념 매트 파니시를 선사한다. 4.5g 4만2천원. '인생로망 루주 루즈 #115'는 매트 핑터는 립스틱보다 립글로스의 외형에 가까운, 슬림하고 길쭉한 보디가 돋보인다. 매트 파니시만 건조한 것이 가볍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 단 한번의 터치로 매혹적인 쿠루를 컬러를 완벽하게 연출해줄 것이다. 2g 4만5천원. 한정으로 선보이는 '립플 입술루즈 루즈 #115'는 레드 핑터는 블랙 무량 케이스에 담긴 매트 레드 컬러가 더욱 도드라진다. 기존의 매트 립스틱보다 더욱 메드하고 강렬하지만 입술에 편안하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 3.4g 4만2천원. 에디터 이자현

INSIGHT

편견부가 없는,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esign 똑똑함은 기본, 세련되고 양증맞은 디자인까지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가 화두라고 할 수도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서도 스마트 기기의 진화는 멈추지 않는 듯하다. 이 시대에 어울리는 똑똑함, 그라-까 한층 더 진화된 기능성은 기본이고, 저차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맞는 디자인을 입은 스마트 기기까지 없지 않아 있다. 카메라 라인업의 에메르소 통하는 라이카(Leica)는 담담한 듯 세련된 '올 블랙'으로 새로 단장한 즉석 카메라 라이카 소프트 블랙 라이카 소프트 블랙(Leica Sofort Black)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화이트, 오렌지, 민트 색상으로 나온 바 있다. 빠르고 간편한 조작법으로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해 사진을 찍은 뒤에 바로 함께 보고 나뉘기 쉬운 즉석 카메라의 매력에 돋보이는 제품. 판매가 43만원. 멀티캠의 대명사 그프로(GoPro)는 한층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타일링도 도와줄 '슬리브 고정 끈'을 선보였다. 손쉽게 장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얇고 유연한 실리콘으로 만들었으며, 목과 손목에 착용 가능한 조절 끈이 포함돼 카메라를 인조하게 휴대할 수 있게 해준다(하이어5 블랙 이후 나온 모든 카메라와 호환 가능). 눈에 띄는 블루, 화이트, 블루 등 세 가지 색상이 있다. 2만5천원. 웨어러블 기기 브랜드 핏빗(Fitbit)은 핏빗 차지 시리즈의 최신형 모델 핏빗 차지 3를 오는 11월 내놓을 예정이다. 수영할 때도 착용 가능한 프리미엄용 디자인, 더 밝아지고 커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15가지 이상의 목표 달성 기반 운동 모드 등을 뽐낸다. 색상은 블랙에 그라파이트 일루미네이션 케이스 블루 그라파이트 로즈 골드 일루미네이션 케이스로 두 가지, 21만9천원.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몸체가 눈에 띄는 소니(Sony)의 무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신제품도 눈에 띈다. 이 헤드폰 모델명 WH-1000XM3은 1000x 시리즈의 3세대 모델로 전작 대비 4배 더 빠른 프로세싱 능력으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음질이 강화됐다. 무게는 255g, 블랙,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가격은 49만9천원.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조선일보미술관 기획전 김성희 개인전 (Transparenter)

2018 아트 조선은 스테이지(2018 Art Chosun on Stage)의 다섯 번째 기획 전시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김성희 교수의 개인전이 개최된다. 제2대 서울대학교 미술관(MoA) 관장을 지내고,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희 교수는 밤하늘의 성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형상을 나타낸 '별 난 이야기-투명인간' 시리즈의 연작이 자신 작품을 포함한 총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명 'Transparenter'는 시어의 이름, 체계, 조직 안에서 희미해져가는 사물과 존재의 의미를 담았다. 그의 작품에서는 점, 선, 면이라는 회화의 기본 요소와 동양의 정신이 만나 끝없는 공간이 펼쳐진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국화에 기법과 수필, 즉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 선들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전체 구도와 흐름 안에서 각각의 방향성이 있는 선들이 움직이며 공간의 깊이감을 형성한다. 김성희 교수는 이번 전시에 대해 '이 세상의 허공을 그리고 싶다. 작고 미미함, 쉽게 소멸되고 마는 것들, 일순의 빛과 같은 순간들, 이들의 덧없음과 삶을 느끼고 싶다'라고 전했다. 문의 02-724-7816





스트라이프에 반전을 줄, 슬림한 캐츠 아이 신들라스 40만원대 프리다 by 룩스타카.

옐로 라이닝이 돋보이는 핫 90만원대 에르메스.

레트로풍 프린팅이 돋보이는 스카프 장식의 데님 재킷 59만원대 MSGM by 한스타일샵.

레우링 디자인이 돋보이는 니트 배지 59만원대 한스타일샵 by 무이.

이코닉한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유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황해 배지 21만원대 토리 스포츠.

예술적인 패턴이 돋보이는 자수가 눈에 띄는 디올 북 토트백, 41.5x32cm, 3백만원대 디올.

합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드림 아이리얼 79만원대 발렌시아가 by 분다남.

구피 1577-1921
 서울 02-3480-0104
 부산 02-3446-8074
 대전 02-6250-7953
 대구 02-3218-5331
 광주 02-2056-1234
 인천 080-700-8800
 제주 02-2056-9023
 룩스타카 02-501-4436
 에르메스 02-542-6622
 토리 스포츠 02-515-4080
 한스타일샵 02-517-4789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뉴욕 양귀즈를 상징하는 NY 로고와 함께 구피만의 감성으로 디자인한 멀티컬러 스웨이드 보머 재킷 7백30만원대 구피.

for her Selection

패션 하우스에 불어닥친 영 파워 열풍! 더욱 감각적인 브랜드 로고와 자유분방하면서도 아티스틱한 터치를 더한 여성을 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항행색의 플레그 체르를 담은 니트 스카프 47만원대 토리 스포츠.

아티스틱한 터치를 더한 스웨이드 배지 59만원대 한스타일샵 by 무이.

트와일라잇 두 가지 버전으로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스카프 21만원대 토리 스포츠.

서피스 니트와 레이아웃이 돋보이는 줄 끈을 스트라이프 배지의 빅 워터 33만원대 JW 로고 by 무이.

바티스트 로고와 디자인으로 돋보이는 에펠루트 1백60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돋보이는 Y3 스트랩 14.9-18.9만원대 Y3.

세련미와 유행을 선도하는 아사테 이클레, 실용성, 예티 이클레.



#CIAOBYTODS

Tod's Korea Inc. 02 3448 8201

BEYOND STEREOTYPES
 EIZA GONZALEZ, ACTRESS
 #MONCLERBEYOND



for him
Selection

패션 하우스와 스트리트 감성을 넘나드는, 에이지의 경계가 완벽히 허물어진 2018 남성 F/W 패션 키워드! 당신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셀렉션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돈오른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실용적인 포켓 디테일의 백팩, 40X43cm, 가격 미정 발리.

블루 프레임 선글라스 30만원대 바버리 by 록스타카.

블루 핑케드 카라멜리주 프린트 모시 25만원 권트.

1980년대 구찌 패치 디테일이 돋보이는 오버사이즈 스웨트셔츠 1백56만원 구찌.

올 시즌의 톨리온 네온 비니 49만원 루이 비통.

클린트 벤투로드 마드를 시카고 1백20만원대 생 로랑 by 안토니 비카펠로.

단색 90년대 스포츠카프 49만원 루이 비통.

새로운 VLTN 로고 미니멀 벨트 38만원 발렌타노 가리바니.

아름다운 터치를 가미한 예술 프린팅이 돋보이는 허프 색 40X30cm, 1천만원대 에르메스.

큰 사이즈와 함께 매끈한 가죽 세팅된 느낌을 자랑 스포츠카프 49만원 루이 비통.

벨트 로고 미니멀 벨트 38만원 발렌타노 가리바니.

스타일업 포인트를 줄 브랜드 로고 프린트 양말 15만원 벤투방 by 무이.

스타일업 포인트를 줄 브랜드 로고 프린트 양말 15만원 벤투방 by 무이.

와이드 리본의 미니멀이 2백80만원대 루이 비통. 41X28cm, 1백49만원 루이 비통.

미니 사이즈 99만원 루이 비통. 미니 사이즈 99만원 루이 비통.

- 구찌 1577-1921
- 발리 02-3467-8935
- 록스타카 02-501-4436
- 겐조 02-6250-7953
- 루이 비통 02-3432-1854
- 살바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 에르메스 02-542-6622
- 리바이스 02-3789-0501
- 한스타일닷컴 02-517-4789
- 프라다 02-3218-5331
- 무이 02-3446-8074
- 디올 02-3480-0104
- 프라다 02-3218-5331
- 발렌타노 가리바니 02-2015-4653
- 생 로랑 by 안토니 비카펠로 02-6905-3924

간스에 티셔츠 또는 셔츠와 레이아웃하기 좋은 반스매 패딩 셔츠 2백20만원대 프라다.



레스토랑 미식문화는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해왔을까?

프랑스 요리에 대해 어떤 이미지와 선호도를 지니고 있던, 어떤 장르의 요리를 하든, 예술의 경지에 비유되는 미식(gastronomy)의 세계에서는 그 영향을 받지 않기가 힘들다. 미식 문화를 둘러싼 체계와 문법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미식의 대중화를 이끈 레스토랑이 18세기 후반 혁명의 물결이 거센터 파리에서 탄생했으며, 많은 미식가들의 시선을 받는 레스토랑 평가서(미술랭 가이드)가 처음 발간된 곳도 프랑스 아닌가. 물론, 어떤 전문가가 말했듯이 이제는 프랑스 요리의 이상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느냐가 아니라 기본은 갖추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이고, 그 어느 때보다 음식 지도의 지평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풍요로움의 원류를 짚어보는 건 우리가 미식을 대할 때 느끼는 즐거움에 조금은 보탬이 될 듯하다.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인류의 행복에 있어 천체의 발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식(美食, gastronomy)의 역사를 짚어볼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장 앙텔레 브리아-사바랭(Jean Anthelme Brillat-Savarin, 1755~1826)이 남긴 어록 중 하나다. 귀족 출신의 프랑스 법관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미식가였던 그는 이 분야의 고전으로 꼽히는 <미각의 생리학(Physiologie du Gout)>이라는 자신의 저서에 음식을 주제로 한 철학적, 과학적 성찰과 함께 다양한 단상을 담았다. 출간 직후 세상을 뜨는 바람에 브리아-사바랭의 유작이 된 이 책은 더러 비난도 받았지만, 사회적 동물이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식탁을 매개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즐기는 행복의 학문’으로 미식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가 살다 간 시대가 그저 허기를 채우거나 맛난 요리를 섭렵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섬세한 미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날 ‘레스토랑’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싹튼 시기와 겹친 것도 우연은 아니었을 터다. 레스토랑의 발명이 이뤄진 플랫폼은 프랑스대혁명의 주 무대인 파리였다. 18세기 전후의 파리를 둘러싼 미식의 역사가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파리를 독보적인 미식의 도시로 만든 레스토랑이라는 발명품

깔끔하고 근사한 공간과 테이블, 격식 있는 메뉴판, 세련된 매너를 갖춘 전문 인력의 서빙. 각자의 취향에 맞춰 정해진 가격의 요리를 사 먹는 현대식 레스토랑의 시초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1765년 파리에서 무슈 불량제(Monsieur Boulanger)가 연 수프 가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그중 하나다. 하지만 무슈 불량제라는 인물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다. 레베카 스캅 같은 역사학자는 18세기 중반 마튀랑 로즈 샹투이조(Mathurin Roze de Chantoiseau)라는 사람이 파리에 세계 최초의 현대식 레스토랑을 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 1782년 앙투안 보빌리에(Antoine Beauvilliers)가 파리에 선보인 ‘그랑 타베르 드 롱드르(Grande Taverne de Londres)’가 본격적인 레스토랑의 효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까다로운 미식가였던 브리아-사바랭도 후한 평가를 내렸던 곳이다. 누가 진정한 개척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는 확실한 듯 보인다. 우선, 레스토랑은 원래 장소가 아니라 음식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restaurer’에서 비롯된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위가 약한 사람을 위한 부용(bouillon, 고기, 생선 등을 끓여 만든 국물)을 일컬었다고 한다. 장소를 뜻하게 됐을 때도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 주로 이 원기를 북돋워주는 국물을 마시기 위해 들르던 곳이었

19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풍경이 떠오르는 꼴을 갖추게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브리아-사바랭은 단순히 식욕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손님이 가게에 머무는 동안에 최대한 쾌적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레스토랑 주인의 임무였다면서 이렇게 묘사했다. “15~20프랑의 돈을 자유롭게 쓰면서 일류 레스토랑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후나 귀족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접대를 받는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누구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789년 대혁명을 계기로 귀족 계층이 몰락하면서 그 밑에서 일하던 요리사와 일꾼도 실업자가 됐는데, 이들이 뜰과구로 레스토랑을 열었다. 상업으로 부를 일군 부르주아 계층이 레스토랑을 찾으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고, 파리는 적어도 19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다른 도시에서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독특한 미식 풍경을 누리게 됐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찾아온 여행자들이 레스토랑을 파리 특유의 자선으로 기억했음을 보여주는 사료가 꽤 많고.

신흥 부르주아의 동경 어린 미각을 사로잡다

18세기 파리에 카페도 엄청나게 성행했다. 특히 17세기 말 처음 파리에 생긴 카페 카페는 계몽주의 철학자를 비롯한 지성인이 모여 토론과 논쟁을 펼치면서 기존 권력을 비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파리의 초기 레스토랑은 표면적으로는 카페와 비슷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다고 한다. 독일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프 리버트는 당시 레스토랑은 격렬한 논쟁이나 신문 읽기 위헤서가 아니라 원기를 회복하거나 자신의 예민함을 드러내려고 찾는, 사적인 성향이 더 강한 공간이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체계를 갖춘 훌륭한 식사를 미학적이고 지적인 활동으로 본 미식가들의 활약으로 레스토랑은 더욱 번성했다. 19세기 파리에서 서로를 자극하면서 발전한 두 가지 사회 영역으로 요식업과 대중 매체가 꼽히기도 한다. 브리아-사바랭과 더불어 유명 미식가였던 알렉상드르 그리모 드 라 르이니에르(Alexandre Grime de La Reynière)가 19세기 초 정기적으로 발행한 <미식가 연감> 같은 미식 비평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다. 레스토랑을 주축으로 한 프랑스의 미식 문화는 혁명의 입김으로 반짝 떠오른 게 아니라 점점 더 화려하게 꽃을 피워나갔다. 그리모 드 르이니에르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름도 없는 수습에서 출발해 지금은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화려로운 레스토랑을 채운 미식 고객이 넘쳐났다는 얘기다(전체 인구로 보면 극히 소수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는 당연히 빼어난 셰프들도 있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면에서 혁신을 꾀하고 실천한 인물들 덕에 프랑스 요리의 체계가 잡히고 다양

하고 섬세한 조리의 예술이 발전했던 것이다. 그 출발점은 궁정 문화에 뿌리를 둔 ‘오트 퀴진(haute cuisine)’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탈리아 명문가 메디치 출신의 카트린 데 메디치(Catherine de Medici, 1519~1589)가 프랑스로 시집오면서 미식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테러운 피렌체의 요리사와 시중 덕분에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식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단조로웠던 식단과 식사문화가 풍성해졌다는 것. 하지만 이는 일부 문헌에 지나치게 기만 과장된 해석이라는 지적도 많다.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 사랑이 자극했던 군주들의 사치 덕분에 르네상스 시대 초반에도 이미 프랑스 요리는 외국인들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화려하고 뛰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탈리아 요리의 영향으로 궁정 요리를 중심으로 한 미식 문화가 더 발달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가스트로노미의 진화, 미각 혁명을 이끈 혁신가들

출중한 궁중 요리사가 다수 있었지만 오트 퀴진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은 인물은 17세기에 활약한 프랑수아 피에르 드 라 바렌(François Pierre de La Varenne)이다. 1651년 <프랑스 요리사(Le Cuisinier François)>라는 요리책을 내기도 한 그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향신료의 사용을 크게 줄이는 등 중세와는 전혀 다른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계절별 요리법을 정리했다. 현대 소스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루(roux)인 기름과 밀가루 농축제도 이 책에 등장한다. 특히 라 바렌의 책 덕분에 독자들은 귀족의 식탁에 오르는 고급 요리의 조리 원리를 ‘보다 쉽고 명료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이 책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다국어로 번역되고 30편이나 발행된 것은 ‘지식의 공유’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이 혁신자에게 온당한 반응이지 않았을까. 18~19세기에 미식계의 큰 도약을 이끈 전제가 나왔다. 왕성한 창작욕과 식욕을 겸비했던 <삼총사>의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가 ‘요리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마리-앙투안 카렘(Marie-Antoine Carême, 1784~1833)이다. ‘오트 퀴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카렘은 코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하고 소스를 2백 종류로 정리하는 등 프랑스 요리를 집대성하고 범유럽적 대표성을 지니도록 지위를 끌어올린 주인공으로 추앙된다. 그는 혁명 이후 미식 문화가 신흥 부르주아 계층 등으로 확산되던 전환기를 살았음에도 화려한 요리 예술의 황금시대를 펼쳐 보였다. 1799년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이래 새로운 귀족층이 생겨나고 화려로운 의식이 중시됐던 시기에 명망 높은 정치가이자 식도라기였던 탈레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덕분에다. <레스토랑의 탄생에서 미술랭 가이드까지>라는 책을 쓴

아기 나오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러시아 등 유럽의 쟁쟁한 궁정으로 날아오른 천재 요리인이었고, 시대가 낳은 거부(巨富) 로스차일드에게서도 러브콜을 받아 최고의 식탁을 차려냈다. 더구나 그는 왕족이나 귀족만이 아니라 검소한 부르주아 가정 등 폭넓은 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저서를 남기면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후진에게 물려줬다(50세도 못 되어 세상을 뜨기 전까지 아홉 권에 이르는 요리책과 건축에 관련된 책도 두 권 썼다). 그의 머릿속에는 요리인 협회를 설립하는 구상까지 있었다고 하니 진정한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적 전환점을 다시 맞은 프렌치 퀴진, 그리고...

하나의 큰 별이 지고 또 하나의 별이 탄생했다. ‘요리사들의 왕’이라고 불렸던 조르주 오귀스트 에스코피에(Georges Auguste Escoffier, 1846~1935)다. 장식적인 요리가 판을 치던 시대에 그는 ‘접시에 놓인 모든 것을 실제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손님이 음식 재료를 알 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신조를 내세운 개혁자적 면모를 갖춘 인물이었다. 장식이 줄어들면 행여나 프랑스 요리가 예술적 지위를 잃고 요리사라는 직업이 하찮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팽배했지만 그는 “간소함은 아름다움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시간 여유가 없었던 20세기 초의 시대상에 맞춰 ‘본업’으로 요리를 신속하게 완성하게 하고 주방의 조직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에스코피에는 진정한 혁신가로 통한다. 이전에는 요리사 1명이 15분 정도 걸려 만들던 요리를 예로 들자면, 그의 주방에서는 채소와 달걀 당당(앙트레메티에)이 달걀을, 구이 당당(로티쇠르)이 앙고기를, 소스 당당(소시에)이 소스를 준비할 때까지 단 몇 분이면 충분했다고. 여기에는 ‘호텔리어들의 왕’으로 불렸던 스위스 사업가인 세자르 리츠와의 환상적인 궁합이 멋지게 작용했다. 13세의 나이에 요리를 시작해 사보이 호텔(런던), 리츠 호텔(파리), 칼튼 호텔(런던), 르 그랑 호텔(파리) 등의 주방을 맡고 컨설팅을 담당하는 등 그야말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에스코피에. 그 역시 산배 셰프처럼 의미 있는 저서를 남겼다. 1903년 초판이 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셰프들의 신앙서사로 여겨진다는 <요리의 길잡이(Le Guide Culinaire)>. 프랑스 요리의 ‘규범’을 만들었기에 자유로운 창조성에 족쇄를 채웠다는 평가도 들었지만(그래도 또 다른 혁신적인 셰프들의 등장으로 누벨 퀴진, 모던 프렌치 등으로 발전해왔다) 에스코피에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파인 다이닝의 근간이 되는 현대식 레스토랑의 창시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인물일 것이다. **이 글은**

Super classic

매년 등장하는 새로운 위치 중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클래식을 기반으로 전통성을 잃지 않고 업그레이드되는, 고전미를 담은 모델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반영한 신제품 남성 위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오토 피니시드 스텔레온 40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블랙 칼리 엘리자비타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면서도 과감한 디자인의 독보적 매력을 담은 위치, 2.35mm에 불과한 극도로 얇은 무브먼트의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소장 가치가 높은 디자인이다. 3천만원대, 문의 02-2056-0170 **가르디에 드라이브 드 가르디에 엑스트라 플랫** 위치 기반은 위치가 대세다. 올해 9월 첫선을 보인 컬렉션으로, 오리지널 모델에 비해 두께가 40%나 축소되어 두께가 7mm에 불과하다. 가르디에 매뉴팩처 매뉴얼 20년째 무브먼트 43MC를 장착해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 남성들의 이브닝 워치라 불릴 만큼 세련되고 우아한 남성의 매력을 드러내는 디자인이다. 6백80만원대, 문의 1566-7277 **몽블랑 1858 크로노그래프 오토 매트** 직경 42mm의 볼드한 케이스를 브라운 소재로 재탄생하고, 스톱-스톱 다이얼을 매치해 더욱 빈티지한 느낌을 준다. 베이지 스티치 장식을 더한 코냑 칼리 빈티지 카프 스킨 스트랩이 독보적인 매력을 극대화한다. 몽블랑 로고 역시 클래식한 버전으로 매치했다. 6백만원대, 문의 1670-4810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 위치 리미티드 에디션** 아폴로 17호 착륙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단 2백72개 한정 판매하는 의미 깊은 모델이다. 그런 이유로 국내에 단 1점만 들어올 정도로 소장 가치가 높다. 특별한 버전의 신상품 위치이자 시계 브랜드의 오랜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블루 다이얼에 골드 케이스, 알파벳이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면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2천5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디터 베미엔**



MaxM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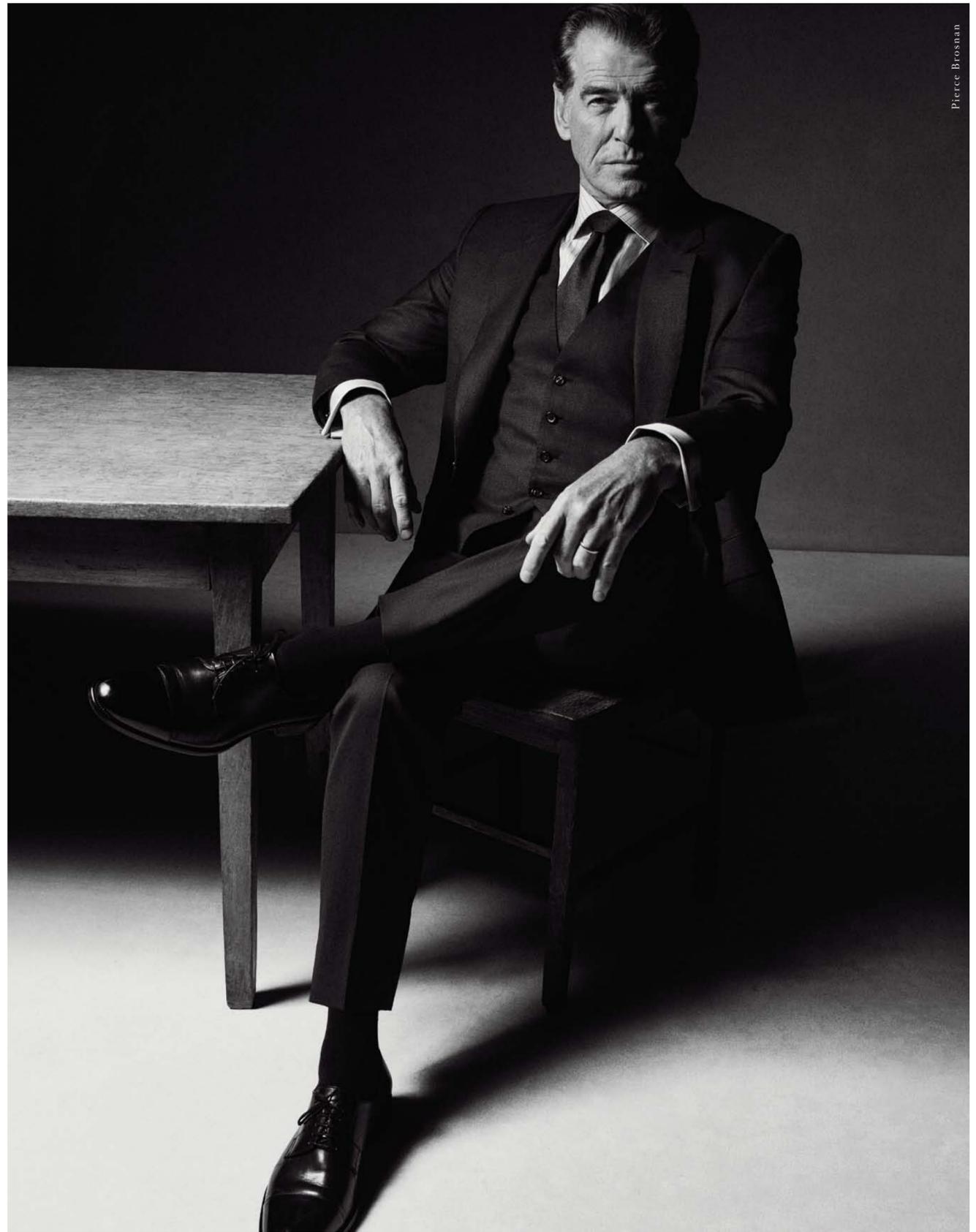
(왼쪽부터 시계 방향) 브랜드의 스타 디자이너인 코코 크러쉬 링을 다양하게 재구성한 버전, 화이트, 옐로우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링, 가격 미정 **사벨 화인 주얼리**, 단순하지만 잊을 수 없는, 못에서 영감을 받은 저스트 앵 글루 브레이슬릿을 더 심플하게 변형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백60만원대, 올해 10월 첫선을 보이는, 나사에서 영감을 받아 명함한 것을 새로운 기법으로 재해석한 에크루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인 너트의 팔각형을 강렬하고도 깊은 주얼리로 완성했다. 저스트 앵 글루 브레이슬릿에 매치하면 돋보이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 8백만원대, 링 각 2백7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골드 비즈 세팅에 다이아몬드의 노부상을 더한 **해롤리 필 오브 골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그린 칼리 말라카이트를 세팅해 볼륨감 있는 **해롤리 필** 브레이슬릿 미디엄 모델 가격 미정, 레이아웃이 하면 더욱 아름답다. 모두 **반클리프 아펠**, 블루 토포즈의 탄자나이트로 아름다운 블루빛을 완성한 다바스 드림 이어링 1천7백만원대, 1960~70년대 밤을 표현하던 알산인 육각형 비늘 패턴을 더한 세르펜티 아이즈 옴니 링, 블루 사피어나와 에메랄드로 표현한 밤의 영웅이 아름답다. 2천만원대, 모두 **볼가리**, 정제된 여성기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티파니의 새로운 파인 주얼리 컬렉션인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종이로 만든 꽃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유려하다. 신성한 블루빛의 탄자나이트를 세팅해 티파니 고유의 세련미를 더한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 탄자나이트 플라워 링 9백만원대, 믹스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클러스터 링 1천만원대, 꽃의 외곽을 세련스럽게 표현한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오픈 플라워 링 6백만원대, 자유로운 듯 보이는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로 꽃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페이퍼 플라워 파베 다이아몬드 플라워 핀드트 1천만원대, 포인트로 쿠션 컷 탄자나이트를 더해 눈길을 사로잡는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 탄자나이트 플라워 핀드트 4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에디터 **베미진**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까르띠에** 1566-7277 **티파니** 02-547-9488 **사벨 화인 주얼리** 080-200-2700 **볼가리** 02-2056-0170



brilliant Wonder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완벽한 터치로 아름다움의 가치를 한 차원 끌어올린,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Pierce Brosnan

TAILORING LEGENDS SINCE 1945

Grand Hyatt Seoul B1, The Shilla Seou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Shinsegae Centum City 5F, Hyundai Main 4F
Avenuel World Tower 4F

Prionj
ROMA

(왼쪽부터) 보이 드 샤넬 르 펴뵁 30ml 9만7천 원, 보이 드 샤넬 르 밤 레브르 3g 4만5천원, 네 가지 컬러로 출시된 보이 드 샤넬 르 스틸로 썬크림 0.27g 5만9천원.



be only You

자유로운 관념, 삶을 예술로 생각하는 자세, 남성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한 새로운 메이크업 컬렉션, 보이 드 샤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샤넬 최초의 남성 메이크업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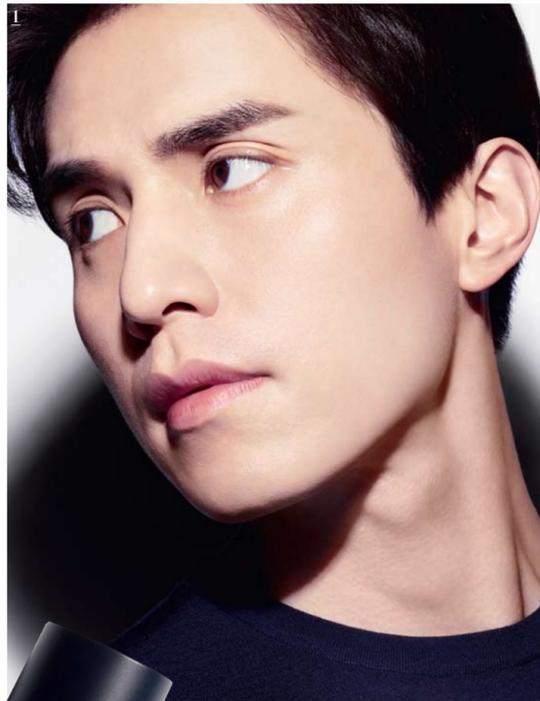
샤넬에서 남성을 위한 첫 번째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인다. 보이 드 샤넬(Boy de Chanel)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된 이 컬렉션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남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핵심적이고 심플한 메시지를 전한다. 기존 코드를 깨고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는 이 새로운 발걸음은 무한한 자유와 창조에 대한 샤넬의 약속이자, 가브리엘 샤넬의 남자 친구였던 보이카렐의 고백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가브리엘 샤넬은 블랙과 화이트, 빛과 그림자 등 남성의 옷장에서 찾은 요소를 여성 패션에도 입혔는데, 남성을 위한 뷰티 컬렉션인 보이 드 샤넬 역시 마찬가지다. 라인과 컬러, 애틀루드, 제스처라는, 스타일에서 중요한 요소를 담아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별 없이 필요에 따라 누구든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플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의 제품을 선보이는 것.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절제된 디자인 역시 마치 예전부터 남성들의 필수품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보이 드 샤넬, 새로운 애틀루드를 규정하다

'Simply Be Yourself', 'Only Better'라는 슬로건에 걸맞도록 고안한 파운데이션과 립밤, 아이브로 펜슬은 제품 구성 자체로 획기적이다.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텍스처와 간결한 로고만이 전부인 립밤은 자연스러운 룩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제격이다. 특히 파운데이션 르 펴뵁은 샤넬의 특징인 극도로 미세하고 가벼운 제형으로 피부가 답

답하지 않도록 가볍게 커버한다. 소프트 포커스 파우더가 피부 톤에 자연스럽게 안착하고 허탈루산이 수분을 공급해 더욱 편안하게 마무리한다. 숨길 수 있는 피부를 연출하는 동시에 따파 피지에 강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번들거리기보다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매트 보이드처라이징 립밤인 르 밤 레브르는 남성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하게 되는 립케어 제품을 더욱 시크하고 멋진 애틀루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술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각질 없이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만일 보이 드 샤넬을 처음 접하는 남성이라면 립 제품이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될 터. 보이 드 샤넬의 진가는 남성의 아름다운 눈썹을 위한 선명한 톱웨어 워터프루프 아이브로 펜슬인 르 스틸로 썬크림, 한 쪽 브러시로 눈썹을 빗어준 후 반대쪽 컬러 펜슬 팁의 사선 부분으로 눈썹의 빈 부분을 채우듯이 쓸어 주면 자연스럽게 정교한 눈썹을 완성할 수 있다. 8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도 놀랍다. '아름다움은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샤넬의 비전에 걸맞은 보이 드 샤넬 컬렉션은 현대 남성의 본연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운 터치를 더하는 새로운 애틀루드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80-332-2700 애틀루드 베이비

1 보이 드 샤넬의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이동욱.
2 네 가지 컬러로 출시된 남성용 파운데이션은 마이크로-메시 테라놀로지 덕분에 손가락으로 쉽게 피 바를 수 있다.



© sponsored by CHANEL



©2018 ISSEY MIYAKE INC.

ISSEY MIYAKE

issey Miyake.com



Loro Piana
 동일한 톤의 따뜻한 가을 소재끼리 더하면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무드를 지어낼 수 있다. 오트밀 컬러 캐시미어 스웨트
 니트 1백70만원대, 크림 베이지 캐시미어 재킷 3백60만원대
 모두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Moncler
 패딩이 되고 개주얼한 스타일만 있는 건 아니다. 패딩도 충분히
 전들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 주목할 것. 프린트 화이트 티셔츠
 36만원, 니트 후드 집업 1백37만원, 차분한 그레이 톤의 구스다운
 울 재킷 2백40만원 모두 **몽클레르**, 문의 02-514-0900

it Jacket

차분한 가을 색의 조화, 따뜻하고 포근한 소재의
 믹스 매치로 완성한, 남성을 위한 가을 아우터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Hugo Boss
 모든 남성에게 잘 어울리고 부담 없는 네이비 컬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련된 느낌을 선사한다. 소재를 달리한 네이비 컬러에 패딩만 더해
 충분히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네이비 컬러 울 니트 21만5천원,
 체크 패턴 재킷 84만원 모두 **휴고 보스**, 문의 02-515-4088



Brunello Cucinelli
 바건드와 오렌지 브릭 색상의 톤온톤 플레트에 블루를 매치해 더욱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완성했다. 블루 셔츠 77만원, 바건디 캐시미어
 라운드 니트 1백50만원, 가을 낙엽 컬러를 담은 체크 재킷 6백17만원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48-2831 에디터 **이지연**

스타일링: 유영, 이시연, 이병, 김서, 세, 사미야케



issey Miyake.com

issey Miyake

KRUG X FISH - SEOUL

savor the Moment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불세출의 오페라계 디바 마리아 칼라스(Maris Callas), 영화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 영국이 낳은 현대미술계 거장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이 빛나는 이름들의 공통분모는 한 샴페인을 '잊지 않는 사랑'으로 간직했다는 것이다. 시대를 풍미한 크리에이터들 말고도 오랜 세월 무수히 많은 이들로부터 밀도 높은 '팬심을 누려온 프레스티지 샴페인 브랜드 크루그(Krug)가 그 대상이다.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브랜드 크루그가 올가을 서울에서 펼치고 있는 푸드 페어링 프로젝트 'KRUG X FISH'의 미각 향연을 소개한다.

맛있다는 감각은 상당히 문화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의 방식, 나고 자란 환경, 인생의 경험이 모두 축적된 것이다. *후쿠다 가즈야 (나홀로 미식 수업)*

오로지 미술관 레스토랑 탐방으로만 가득한 3박 4일의 여행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미식(美 食) 사랑이 대단한 일본의 문필가 후쿠다 가즈야. 그는 '미식의 세계에서 미의식에 도달하려면 초일류를 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든다. "일류 골동품 가게에서는 점원이 새로 들어오면 한동안은 진품만 만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류 물건, 진짜를 제대로 맛보고 그 감촉을 익혀두면 엉터리나 가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식에서도 '맛의 최고봉'을 알게 되면 자연히 그 아래 단계도 이해할 수 있고, 저절로 미각의 기준이 생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미각이라 함은 그저 맛이 있다, 없다 같은 초보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정한 문화적 축적으로 형성된 심미안 같은 안목을 뜻한다. 이 엄격하고 고집스러운 미식가의 논리인즉슨, 골동품처럼 미식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지고 세련되어진 것이기에 처음에는 돈과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런 식으로 미각을 키우고 단련해 자신이 평생 다닐 만한 레스토랑을 발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것. 물론 우리 중 대다수는 미식을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기면서 농도 짙은 애정과 강도 높은 투자를 꾸준히 식생활에 쏟아붓지는 못한다. 하지만 식도락을 뿌리치는 인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먹는 것의 즐거움, 어쩌면 미식의 미학까지 마음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후쿠다 가즈야는 이렇게 조언한다. "처음에는 알기 쉬운 멜로디나 주제를 찾아 듣기 시작하지만, 점점 세련되고 개성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높은 차원의 예술, 본질적인 예술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적 감각의 정수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혹은 미식의 세계에 발걸음을 들여놓게 할 만한 매혹적인 식(食) 풍경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다. 후쿠다 가즈야 같은 까다로운 미식가들도 찬양하는 프랑스의 명품 샴페인 브랜드 크루그(Krug)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치명적인 세프들과 손 잡고 한 가지 식재료를 주제로 전개하는 푸드 페어링(food pairing) 프로젝트, 'KRUG X FISH'가 그 주인공이다.



궁극의 샴페인 페어링 'KRUG X FISH', 서울의 레스토랑 다섯 곳과 협업

크루그는 3년 전부터 브랜드를 상징하는 프레스티지 샴페인 '크루그 그랑 퀴베(Krug Grande Cuvée)'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를 주제로 전 세계에 걸쳐 세프들과의 미식 협업을 해마다 펼쳐왔다. 첫해인 2015년에 감자를 시작으로 2016년 달걀, 2017년 버섯, 그리고 올해는 생선이다. 한국에서는 'KRUG X FISH' 프로젝트에 프렌치, 한식, 일식 등을 아우르는 레스토랑이 참여했는데, 라미띠에(장명식 셰프), 정식당(김정호 셰프), 스시조(한석원 셰프), 권수중(권우중 셰프), 레스쁘아 뒤 이부(임기학 셰프) 등 다섯 곳이다. 저마다 내공과 창의력을 발휘해 크루그와 잘 어울리는 생선 요리를 선보였다. 술과 요리의 조화를 도모하는 '페어링(pairing)'은 우리 식문화에서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미식 문화다. 이 앙상블을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리가 술의 품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든, 술이 미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든 그 선후(先後)는 그리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둘의 절묘한 조화로 즐거움과 건강함을 더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 계기가 크루그처럼 내로라하는 세프들이 극찬해마지않는 프레스티지 샴페인이라면 두말해 무엇 하랴. 더구나 크루그는 '샴페인 만찬(champagne dinner)'이라는 장르를 나름 개척해냈다고 자부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크루그를 이끄는 사령탑 매기 엔리케즈(Maggie Henriquez)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녀는 1970년대 크루그 가문 5대손인 앙리 크루그와 레미 크루그가 당시로서는 새로웠던 '샴페인 디너'라는 콘셉트를 현대적으로 재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여름 한국을 찾은 크루그 가문 6대 계승자 올리비에 크루그(Olivier Krug)도 "훌륭한 샴페인은 요리와 빼어난 궁합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듯이, 최상급 샴페인의 청량하면서도 복합적인 맛과 향, 매끄러운 질감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의 '작품'과 만나면 그 화학작용은 사뭇 예술적일 수 있다. 백문불여일식(百聞不如一食)이겠지만, 오감을 섬세하게 자극하면서 뇌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할까. 올가을 서울의 미식 풍경을 다채로운 감각으로 수놓고 있는 'KRUG X FISH' 페어링의 면면을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레스토랑 다섯 곳과 함께 소개한다. **글 오성연**

● sponsored by KRUG



김찰맛나는 콩소메와 보리 리스토를 곁들인, 숯불에 구운 민어조기.

라미띠에(L'amitié)_장명식 셰프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오랜 미식의 길을 자국이 깊어오며 미술관 1스타를 받은 라미띠에의 장명식 셰프. 크루그를 처음 맛봤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아 자연스레 팬이 됐다. 그는 이번 'KRUG X FISH' 협업 프로젝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선택을 했다. 숯불에 구운 민어조기에 김찰맛 나 는 콩소메와 보리 리스토를 곁들인 생선 요리다(라미띠에의 코스 요리에서 '오늘의 생선 요리'로 택할 수 있다). 프랑스 요리에서 흔히 쓰는 농어나 광어가 아니라 민어조기와 샴페인의 만남이라는 재료의 마리아주부터 창의성이 돋보이는데, 맛도 빼어나다. 장명식 셰프가 설명하기를, 조기는 갈라지고 으스스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어조기는 쫄쫄쫄쫄하다는 특성을 생각했고, 한식의 보리국밥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최대한 프렌치 기법을 사용한 장명식 셰프의 요리는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린 리스토 위에 팬에 익힌 다음 숯불에 한번 더 구운 민어조기를 올린다. 여기에 스킨의 육향과 조개 스킨, 다치마의 김찰맛이 조화를 이루는 콩소메를 부어 사철한다. 빈잔조 생선 특유의 식감과 향이 은근하게 묻어나면서 크루그그랑 퀴베의 품미를 극대화하며, 파르메산 치즈를 넣은 보리 리스토는 샴페인의 숙성미를 도드라지게 한다고. 또 콩소메는 스킨을 비롯해 대파, 양파, 표고, 마늘, 월계수 잎 등 여러 재료와 정성이 어우러져 김찰맛이 나므로 풍부하고 복합적인 크루그와의 매칭이 좋다고 한다. 시 각적으로도 크루그의 금빛과 콩소메 색이 근사한 조화를 이뤄내는 물론이다. 이 요리가 포함된 코스 메뉴를 맛볼 때 크루그 그랑 퀴베 하프 보틀(375ml), 또는 크루그그랑 퀴베 166에디션(750ml) 중 선택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lamitie.modoo.at>. **문의** 02-546-9621



정식당(Jungsik)_김정호 셰프

한식 요리를 독창적인 감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한 '뉴 코리아' 파인 다이닝의 대명사, 정식당. 미술관 2스타의 무게감을 지켜가면서 서울 청담동의 정식당을 지휘하고 있는 김정호 헤드 셰프는 젊은 감각과 도전 의식 만 갖춘 게 아니라, 일찍이 커리어 노선에 뛰어들어 한 번향만 바라보며 달려온 만큼 탄탄한 내공의 소유자다(오너 셰프인 임정식 셰프는 평양생선과 매운 골령을 다루는 명화육과 뉴욕에 있는 정식당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KRUG X FISH' 프로젝트를 위해 그에게 선택받은 재료는 옥돔. 정확히는 '방아 빻를 랭과 토마토를 곁들인 옥돔 요리다. 방아 잎을 데쳐 튀려로 만든 다음에 토마토, 실컷, 사과를 넣어 만든 소스그 위에 '선 드라'인 토마토를 올린다(와 스팀 과정을 거쳐 비늘을 세워서 튀긴 옥돔과의 조화가 일단 뛰어나다. 방아 잎의 싱콤한 느낌과 토마토의 청량함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은은하게 접시 전체를 감싸면서 파지는 방아 향은 물론이고 겹질 하나하나를 살려서 튀긴 비늘의 바삭한 식감이 오감을 일깨운다. 크루그 그랑 퀴베의 조밀하고 활기 찬 기포와의 궁합도 안상맞춤이다. "씹을수록 올라오는 신선한 방아 잎의 일사한 향과 더불어 토마토의 과즙이 타지켜 느끼지는 새콤달콤함 이 크루그 그랑 퀴베의 청사과, 시트러스류의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음식과 어우러져 새로운 신선함을 보여줍니다. 풍부한 미세말과 깔끔한 산도가 방아 향과 함께 입안에 긴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는 점에도 주목해주세요." 김정호 셰프의 설명이다. 정식당의 크루그 페어링 코스에는 크루그 그랑 퀴베 166 에디션을 사철하며, 잔클리사기나 보틀 단위 주문 모두 가능하다. **홈페이지** <http://jungsik.kr> **문의** 02-517-4654

방아 비료블랑 (방아 비료를 뜻하는 정통 프랑스 소스)과 토마토를 곁들인 옥돔 요리.





랩스터 미스네장 앙 소스를 곁들인 동해산 우니(상계알) 요리. 7~10월이 제철인 우니의 신선하고 녹진한 식감이 풍부하고 복합적인 크루그의 풍미와 잘 어울린다.

스시조(Sushi Cho)_한석원 셰프

스시와 샴페인의 마리아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철학'이다. 특히 '일식' 하면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조선회텔 스시조리엔 궁중음식 치밀고, 시들했던 식욕도 차츰 수북이 없을 터. 오래도록 스시조의 주장을 책임져온 한석원 셰프가 KRUG X FISH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선보인 전용 페어링 코스 메뉴(크루그 그랑 2잔 or 보틀 주문 시)에 절로 눈길이 가는 이유다. 가을 이루어(연어알)를 곁들인 우니(상계알)와 대게 짐▶랩스터 앙 소스의 동해산 우니▶프리미엄 모듬 생선회▶소고기 스테이크와 송고버섯▶시소 향을 곁들인 육동찜-스시 조리장 모듬 스시▶트라플 꿀을 토핑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이 중 크루그와의 매칭을 위한 하이라이트는 랩스터 앙 소스의 동해산 우니 요리.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의 담백한 맛을 한껏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는 이 요리는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조리하고 절리화할 때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든다. 7월부터 10월까지 제철인 신선한 우니를 활용해 좀 더 색다른 식감을 더해보고자 했다"는 한석원 셰프는 "앙 소스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를 절리화한 다음에 랩스터 내장과 가쓰오 국물과 조미료 앙 소스를 만든다"며 "이 소스의 부드러움이 동해산 우니의 녹진한 맛과 잘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단맛이 살짝 도는 우니는 크루그의 풍부한 기포와 우아하고 복합적인 풍미와도 균형이 맞다고. 스시조에는 크루그 그랑 퀴베 166 에디션, 350ml 하프 보틀, 750ml 보틀, 크루그 2004, 크루그 로제 등 다양한 크루그 시리즈가 준비돼 있다.

홈페이지 <https://tvc.echosunhotel.com/dining/sushiCho.do?strmlCode=SUSHI-CHO&wbOutlet=011 문의 02-317-0314>



태양초를 이용한 제철 생선찜(금대구), 살짝 매운 연어도 은은하게 느껴지는 미네랄과 단맛의 아우러짐이 식욕을 북돋는 생선찜 요리와 샴페인의 만남이 오감을 풍부하게 충족시킨다.

권숙수(Kwon Sook Soo)_권우중 셰프

현대적인 한식 코스 요리를 '나만의 주안상'이라는 콘셉트로 즐길 수 있는 권숙수. 단아한 느낌의 작은 1인용 나무 상 위에 놓인 양젓맛은 식기들, 그리고 그 인을 채우고 있는 정갈하고 소담스러운 요리가 인상적인 곳이다. 미식이라는 '총체적 경험'을 세련된 한국식으로 풀어 낸 느낌이랄까, 조리의 기본을 중시하는 건 파인 다이닝의 당연한 자세지만, 권숙수는 식재료의 품질과 구성, 조리해내는 정성이 '미슐랭 2 스타'라는 이름값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돋보인다. 'KRUG x FISH' 협업 메뉴로는 태양초를 이용한 제철 생선찜을 택했다. 형태를 살려 부드럽게 찌낸 금대구 위에 전라남도 광양산 태양초로 만든 양념장과 무, 고사리, 고구마순, 생선 가시를 사용해 만든 매콤한 소스를 부은 뒤에 가나시로 제피와 파채를 곁들였다. 권우중 셰프의 설명을 빌리자면 '생선의 담백한 맛과 살짝 짭짤 달콤한 태양초 소스의 맛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요리. 대개 생선찜은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기가 어렵고, 맛도 언제나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 생선찜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잘 익은 채소의 단맛이 기본 좋게 느껴지는 이 생선찜이 복잡하고 섬세한 크루그 그랑 퀴베와 함께했을 때 서로의 이모티가 섞이면서 이국적인 스페이스와 미네랄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의 미네랄이 어우러지면서 요리의 담백함을 배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숙수에서는 이 요리가 포함된 코스 요리를 주문할 때 크루그 그랑 퀴베 166 에디션(750ml)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kwonsooksoo.com 문의 02-542-6268>



금대구 부이베스, 프랑스 전통 요리 부이베스의 진한 맛과 감칠맛을 비슷하게 익힌 기름진 금대구, 그리고 활기찬 크루그의 기포와 신선한 파-시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레스쁘아 뒤 이부(L'Espoir du Hibou)_임기학 셰프

'창동동 맛집으로 흔들림 없는 위상을 지켜온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레스쁘아 뒤 이부. 임기학 셰프가 이끄는 이 레스토랑은 크루그를 재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인 크루그 안바시드다. 세계 곳곳에 1백40여 곳의 크루그 안바시드(레스토랑)나 와인 소매상)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2017년까지 레스쁘아 뒤 이부가 유일하다. 주재료로 '생선'이 낙점된 올해 프로젝트를 위해 임 셰프가 선택한 요리는 금대구 부이베스. 바다의 복합적인 맛과 산미를 내는 프랑스 전통 음식인 부이베스(생선을 비롯한 해산물과 마늘, 양파, 감자 등을 넣고 끓인 마르세유 지방의 생선 스투와 샴페인을 과감하게 매칭해보자는 시도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토마토와 사프론, 다양한 생선 가시, 마리와 채소, 로제 와인 등을 넣어 끓인 부이베스를 소스 형태로 만들고, 잘 손질한 금대를 곁들인 바삭하게 굽고 살 쪽은 바터를 까얌터 익히는 요리법을 반영했다. 전통 음식을 나만의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는데, 이것이 전통을 품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크루그의 이미지와 잘 맞을 거라 생각했다고 임 셰프는 말했다. 크루그 그랑 퀴베 166 에디션을 선택했는데, 이 에디션의 파노우에서 느낄 수 있는 화려한 꽃이나 과실의 이모티, 파노우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노트 풍미, 토스찬한 브리우수의 맛이 다소 강할 수 있는 부이베스의 진한 맛과 대담하게 어우러진다고. 또 기름진 편에 속하는 생선인 금대구 역시 쉽지 않게 피어오르는 청량한 크루그의 기포와 신선한 파-시리, 진한 여운으로 남는 시트러스 향에도 다채로운 방식의 조화를 일구었다. 크루그(2잔, 하프 보틀, 750ml 보틀) 가격에 모두 매각된다. 문의 02-517-6034

인바나오리 촬영 감독은 이미지 제공 크루그



1백70년 넘는 친린한 전통을 지닌 크루그가 샴페인 애호가를 대하는 현대적인 방식

"크루그가 샴페인 세계에서 가장 컨템퍼러리(contemporary)한 면모를 지닌 럭셔리 브랜드로 인지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크루그와의 조우(Krug Encounters)'라는 행사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크루그 기문의 6대 계승자이자 하우스 디렉터(house director) 올리비에 크루그(Olivier Krug)가 한 말이다. 이 같은 방향성은 실제로 크루그가 샴페인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소통시키는 방식에 뚜렷하게 반영돼 있다. 1백70년이 넘는 전통과 탁월한 '스펙트럼 크루그 그랑 퀴베'의 경우엔 제철인 테이스팅 과정을 통해 최종 선택된 10여 가지 빈티지에 나온 내은 1백20여 가지 와인들을 블렌딩한 다음에 최소 6년 이상 숙성된 다음에 요르스쿨로 내세우지 않고 샴페인을 접하는 이들이 '순수한 음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식재료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푸드 페어링 프로젝트 말고도 음악과 어우러지는 '뮤직 페어링(music pairing)',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반인 '크루그 ID'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 이러한 창의적인 행보는 굳이 화려한 면면을 내세우지 않고도 충분히 인정받아왔다는 자신감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크루그라는 브랜드의 본질이 지위(status)나 권력이 아니라 '즐거움에 있다는 청량자 조셉 크루그(Joseph Krug)의 가치관과 철학을 존중한다'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먼저 뮤직 페어링은 해마다 크루그와 어울리는 음악을 뮤직선들과 협업을 통해 선정한 샴페인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청각과 미각의 상관관계도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지만, 음악이 정말로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작용하는 최상의 도구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게다가 샴페인 특유의 기포 덕분에 때려야 할 수 없는 관계인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감성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펼쳐진 '크루그와의 조우' 행사에서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복합 공간 오픈 오토트, 그리고 푸드 페어링 프로젝트에 참가한 프렌치 레스토랑 라미에와 레스쁘아 뒤 이부에서 샴페인과 요리, 뮤직 페어링을 조화롭게 선보였다. '크루그 ID' 역시 마시는 즐거움을 배가해주는 유용한 도구다. 모든 크루그 샴페인 보틀 뒷면에 있는 레이블에는 6자리 숫자로 된 ID가 있는데, 이를 모바일 앱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메인저 웹, 그리고 크루그 웹사이트(krug.com)를 통해 입력하면 해당 샴페인의 이모티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크루그 그랑 퀴베 ID 313052의 경우에는 블렌딩된 와인 종류가 1백207가지이고, 그중 가장 어린 와인은 2003년산, 가장 오래 숙성된 와인은 1988년산으로, 2013년 '와인스펙테이터'에서 97점 을 받았다는 정보, 셀러 마스터 소개 등 내실 있는 스토리를 압축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을 내리면 뮤직 페어링의 일찌배기 결과물인 '음악 리스트'도 볼 수 있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처럼 어렵지 않게 샴페인을 즐기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호기심을 충족하게 충족시키는 요소를 한데 녹인 행사기 바로 '크루그와의 조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감각적인 상위체제의 미학을 접하고 싶다면 올가을 서울의 미식 풍경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는 KRUG X FISH를 주목할 만하다.

블랙 & 화이트 울 체크 재킷 가격 미정,
팬츠 가격 미정, XXX 컬렉션으로
국내 단독 출시한 블랙 스니커즈
1백10만5천원 모두
에르메네갈름도 재나구먼트.

AUTUMN TRAVELER

황량함마저 매혹적인 가을에 떠나는 여행. 2018 F/W 맨즈 웨어 셀렉션.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그린 컬러 트렌치코트, 버건디 니트 탑,
이너로 입은 트레이닝 점퍼 재킷,
블루 트레이닝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발멘타노.

파치우크 캐시미어 스웨터
1백49만원 바버리.



베이지 재킷과 팬츠, 그린 로퍼
모두 가격 미정 구찌, 골드아이커튼
17만5천원 포트레이트 리모트.



블랙 재킷, 패턴 셔츠와
팬츠 모두 가격미정
보타가 에나타.



네오비 패턴 보머 재킷 4백69만5천원,
블루 롱 1백70만5천원,
네오비 팬츠 1백66만5천원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꾸뛰르.



패턴 니트 톱, 프린트 반스메셔츠,
내안비 쇼츠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블랙 삭스 스니커즈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블루 패턴 니트 톱,
베이지 셔츠, 그레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 에르메스립도 재나 꾸뛰르 02-518-0285
- 바버리 02-3485-6600
-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 프리다 02-3442-1830
- 에르메스 02-542-6622
- 구찌 1577-1921
- 포트레이트 리포트 02-6338-9007
- 발렌티노 02-2015-4653

(남자) 그레이 코트 3백35만원,
 다크 그레이 셔츠 79만원, 잠업 니트 69만원,
 베이지 팬츠 3백89만원, 블랙 앵글부츠
 1백5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여자) 브라운 재킷 2백35만원, 옐로 셔츠
 69만원, 블루 타일워치 89만원, 레드 팬츠
 3백99만원, 네이비 스트랩 힐 2백35만원, 블랙
 토트백 2백5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modern Classic

전통적인 실루엣에 컨템퍼러리한 감성을 불어넣어,
 다채로운 소재와 컬러 팔레트의 조화가 돋보이는
 특유의 유연한 스타일링으로 완성한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18 F/W 컬렉션. 브랜드의 시그니처 간치니 로고를
 더욱 세련되게 재해석한 액세서리 라인 또한 눈여겨볼 것.
photographed by jung ji eun

● sponsored by SALVATORE FERRAGAMO



간치니 로고 장식 화이트 로퍼 85만원 **살바토레 페라가모**.



간치니 로고 디테일의 미니 백 2백99만원,
 블랙 레더 굿드 미러 굽 앵글부츠
 1백2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블랙 벨벳 드레스 2백45만원,
 간치니 잠금장치 디테일의 미니 체인 백
 2백9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로그랭 리본 장식의 레드 바니 슈즈
 69만원 **살바토레 페라가모**.



브라운 재킷 2백92만원, 퍼플 컬러 셔츠 42만원, 블랙 미니 크로스백 8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기오**.

(남자) 브라운 체크 코트 4백99만원,
그레이 블루톤 1백55만원, 블루 셔츠
57만원, 그레이 팬츠 99만원,
블랙 보스톤백 2백85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기오**.
(여자) 베이지 스웨이드 셔츠 5백35만원,
스카트 9백75만원, 퍼플 컬러의 플랩 백
2백9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기오**.
문의 02-3430-7854

헤어 한결
메이크업 **홍원정**
모델 **강아현, 전준영**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에디터 **이지연**



다크 그린 컬러 브리프케이스
1백79만원 **살바토레 페라기오**.

간치니 로고 장식이 돋보이는 다크 그린 컬러
로퍼 85만원 **살바토레 페라기오**.



Play luxury

2018년 8월 17일, 에르메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매장의 새로운 단장을 기념하는 즐거운 축제가 열렸다. 누구나 동경하는 브랜드, 에르메스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특별하고 남달랐다.

즐거움과 편안함 속에서 진정한 럭셔리를 즐기다

2018년 8월 17일, 에르메스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매장을 새 단장해 고객을 맞이했다. 파리의 건축 사무소 RDAI가 디자인한 이 매장은 약 250m²의 공간으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들어서는 순간 편안함과 아늑함이 느껴진다. 새롭게 변화한 매장은 자연의 모래빛, 유목색과 다양한 청색 계열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었다. 바다에 깔린 카펫의 규칙적인 문양과 푸른빛의 평온한 색감은 안정감을 주며 마치 고급스러운 리빙 룸에 들어선 듯하다. 원목 소재의 장식장들은 각이 지 있지만 엄격한 느낌보다는 시원하고 친근한 느낌. 물론 기존 에르메스 매장의 고급스러움은 여전하다. 제품 역시 카테고리별로 잘 구분되어 편의성이 돋보이고, 절묘한 디스플레이로 각 영역의 독립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나만의 쇼핑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참신한 공간 구성을 통해 느껴지는 섬세한 배려가 에르메스의 '퀄리티'를 새삼 깨닫게 한다. 진정한 럭셔리란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편안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매장의 외부는 살갓빛이 도는 금색 페인트와 투명 및 반투명 소재의 유리를 다양하게 사용했고, 특별히 제품이 디스플레이되지 않은 영역의 투명한 유리 부분에는 부산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색상의 금속 섬유를 사용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매장의 특별함을 더했다. 매장 입구에는 각 공간을 구획하는 패턴이 인상적인 연속된 드림 천장과 에르메스 매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엑스 리브리스 문양 및 건축적인 모티브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 편안함과 세련됨이 돋보이는 새로운 출발이다. 매장에 들어서면, 여성과 남성 실크 제품이 패션 액세서리와 함께 우아하게 디스플레이되어 있어 고객들은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과 특별한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가죽 제품이 놓인 공간의 왼쪽은 주얼리와 시계를 위한 공간이며, 오른쪽에서는 향수와 홈 컬렉션 제품을 선보인다. 매장 뒤편으로는 남성복 컬렉션이 피팅 룸과 함께 디스플레이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으로는 여성복 컬렉션과 VIP룸이 준비되어 있다. 언제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에르메스의 매장 내 3개의 쇼윈도는 타로 카드 마스터의 특별한 게임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매장을 축하하는 콘셉트로 한국 아티스트 김중삼가 작가의 작품으로 특별하게 디스플레이했다. 타로 카드 22장 중 길상을 담고 있는 카드를 골라 그 요소를 재조합하고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에르메스 섀넌 카드'라는 3장의 새로운 카드를 만들었다. 이 카드들은 에르메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떠들썩한 축제를 상징한다. 밝은 원색, 다양한 형태, 입체감이 느껴지는 조형물 등이 잠시나마 보는 이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다. 이 쇼윈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에르메스의 이번 시즌 테마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잠시나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일까? 8월 마지막 날 열린 이벤트는 이번 환상을 현실로 옮겨놓은 특별한 축제였다. 고객들은 알록달록한 놀이동산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서 모두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웃고 떠들며 유쾌한 놀이를 즐겼다.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추억거리로 가득했던 특별한 공간과 시간. 럭셔리가 주는 즐거움, 바로 이번 시즌 에르메스가 보여주고 싶었던 테마가 아니었을까? 에르메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언제나 최고의 품질이다. 1837년 설립된 에르메스는 6대에 걸쳐 진취적인 장인들과 함께 과거에 대한 존경과 미래에 대한 열정을 통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며, 이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혁신의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고 있다. 최고의 품질과 혁신의 가치. 지금 에르메스의 매장에 가면 이 변치 않는 철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에르메스 매장.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인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편안한 색감과 편의성, 독립성을 살린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2, 3 이번 시즌 에르메스의 테마를 보여주는 쇼윈도 디스플레이. 밝은 컬러와 알록달록한 놀이동산을 통해 즐거움을 일깨워준다. 4 섀넌카드를 테마로 제작된 에르메스 이벤트. 동심을 일깨우는 즐거운 놀이를 모두 마친 후 선물 증정. 5 새롭게 선보인, 컬러 조형이 신선했던 키트 스틱. 6, 7 활동적인 느낌이 돋보이는 이번 시즌 에르메스의 신제품.



Franziska (@franzibalzer), Brand Director, Berlin, Germany



Alessa (@alessa_w), Fashion blogger, Berlin, Germany



2018 F/W 오브제 광고 캠페인.

Street couture

런웨이와 스트리트의 장벽이 완벽히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거리 어디서든 쿨투어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오브제는 가장 동시대적인 패션 키워드 스트리트 쿨투어(street couture)를 테마로 매거진 편집장과 포토그래퍼, DJ, 모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13인의 인플루언서와 함께 런던, 베를린,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오브제의 2018 F/W 컬렉션을 당신의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누리보길.



Daria (@dariamalygina), DJ, Moscow, Russia



Leah (@leahdewavrin), Brand Founder, London, England



Josie (@josielane), Model, London, England



Sasha (@sashapanika), DJ & Model, Moscow, Russia

advanced Beauty

바빠서 피부 관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하루에 단 10~20분만 투자하면 피부 탄력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보디 셰이프를 매끈하게 가꿀 수 있는 특급 비결이 여기 있다. 여배우들의 피부 관리법으로도 잘 알려진, 집에서든 클리닉 시술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인뷰티 RF 보체 케어스파 쿠퍼** 뷰티 디바이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2016년, 2017년에 보디용 기기 부문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각종 상을 수상한 0번이 있는, 보디 케어를 위한 알뜰 디바이스 마스터기. 체지방 관리와 피부 탄력 증진을 위해 에스테틱이나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고주파, EMS 기능을 적용해 이 제품 하나로 보디의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페이스 라인까지 탄력 있게 관리할 수 있다. 330kHz의 초음파가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을 주고 체지방 분해 시술에도 적용되는 EMS와 RF가 근육을 자극해 탄력 있는 보디 & 페이스 라인을 가꿔준다. 고인도는 부위를 문지르면 따뜻한 온열감과 함께 진동이 통하는 듯 짜릿짜릿한 자극이 느껴지지만, 결코 아프지 않다. 또 손 마시지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고안된 돌기 디자인은 마사지 효과를 보여 입주위에 2~3회 꾸준히 사용하면 얼굴과 몸의 라인이 확실히 매끈하게 정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9만원. 문의 1661-0690

LG전자 파코필 디아 LED 마스크 화이트 골드 에디션 1백20개의 LED 빛 파장을 적용해 하루 9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만으로 피부 탄력과 톤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는 LED 마스크. 파코필 각기 다른 적색 LED 60개, 적외선 LED 60개가 피부에 골고루 침투해 콜라겐, 엘라스틴 등 피부 탄력을 좌우하는 인자를 자극하고 재생시키는 원리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ED를 이마, 양미, 눈 밑 등 고민 부위에 집중 배치한 것이 특징. 마스크를 쓰고 사치 바튼을 누르면 진동을 시작하잖나? 라는 안티 멘탈을 함께 9분 동안 LED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LED와 같은 빛이지만 출력을 낮춰 예민한 피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 관리를 하는 동안 따뜻한 느낌을 정도로 자극이 없고, 9분 후 즉각적으로 피부 톤이 밝아지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장을 쓰듯 손쉽게 착용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입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79만9천원. 문의 1544-7777

클라리니스 스킨 케어 프루퍼필 업리프트 팜핑 마사지 기능을 갖춘, 보다 진보된 형태를 클렌징 마사지기. 클렌징 브러시 애플리케이션과 탄력 마사지기 헤드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구성한 제품으로, 클렌징과 탄력 마사지의 양방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팜핑 마사지기 기능은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초음파 울파 기술을 적용, 피부 탄력과 리프팅, 주름 개선 등에 눈에 띄는 효과를 선사한다. 하루 두 번 세균 부위, 데콜레 라인, 목, 턱, 양볼, 이마 부위를 3분 동안 마사지하면 마치 경각 마사지를 받은 듯 통탄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불규칙한 라인을 매끈하게 잡아준다. 클렌징 기능 역시 업그레이드해 기존 60초 클렌징 시스템에서 80초 클렌징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38만원. 문의 080-348-0030

메이크업 쉐스 스킨 케어 매일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이 갑자기 피부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해볼 것. 90가 다른 초음파 에너지를 스킨케어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이 제품은 1초에 3만번 회 이상 진동하는 초음파 마사기로 피부의 깊을 열어주고 스킨케어 제품의 유효 성분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초음파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마사지기능으로 피부의 흡수능 및 보습 기능을 원활히 해 보습, 탄력, 안색 개선에도 효과적. 실제 실험 결과에서 제품 사용 8주 후를 기준으로 차일도 45.4%, 탄력 31.4%, 피부색 균일도 11.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엔드 주얼리에 사용하는 까다롭고 고구한 소재인 지르코니아 세라미움에 헤드를 적용해 금속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얼얼한 이마, 목, 어깨, 손 등 20여곳 부위에 마사지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만원대. 문의 080-023-5454

리파 그레이스 헤드 스파 두피 마사지와 클렌징이 가능한 두피 전용 디바이스. 머리카락이 곤란할 때 이 디바이스로 두피를 마사지하면 마치 전문 헤드 스파에 온 것 같은 듯 온몸의 피로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문 에스테티션의 손길을 적용한 고풍도 3D 클라리 울파는 입자력으로 원을 고여, 문지르는 지만 문지름을 구현한 것이고, 이와 함께 동시에 회전하는 4개의 롤러는 두피를 기본 출제 진아 윤하는 기능을 해 마사지 효과를 높인다. 심부 시 노폐물 제거를 돕는 클렌징 브러시를 함께 구성해 필요에 따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로 모드(Low Mode)와 유효하게 자극하는 하이 모드(High Mode)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39만8천원. 문의 080-555-8800

실론 스킨케어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빛 & 콜 마사지기. 피부를 따뜻하게 해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는 6형 모드와 일시적으로 모공을 수축하고 부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울파 모드도 모두 담은 디바이스다. 6형 모드는 클렌징 전 또는 스킨케어 시에 사용하면 피부의 모공을 열어 노폐물 제거에 용이하고, 화장감의 흡수를 도와 제품 효과를 높인다. 울파 모드는 마치 울파를 받듯 광장히 차갑고 시원한 것이 특징으로, 눈과 얼굴 부기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외선에 의해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라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특별이 기능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스터 모드는 음파 진동 효과로 두 가지 모드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8만9천원. 문의 080-246-1234 **에디터 권유진**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훈〉 에디터가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가을 뷰티 뉴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포레오 미니 진동 클렌저 루노** 폼 클렌저로 1차 세안하고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기를 얼굴에 문질러주면 메이크업은 물론 피부에 미사하게 쌓인 각질까지 부드럽게 제거해준다. 평소 브러시 타입의 클렌징 디바이스만 사용했는데, 포레오는 자극이 없고 세안이 번식하지 않는 실리콘 소재로 위생적이고 간편하다. 브러시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더욱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13만9천원. 문의 02-525-0058 **by 에디터 이지현**

대성디바 브러리스 시스 F/W 컬렉션 체크 버건디 이번 2018 F/W 시즌 패션 트렌드를 담은, 클래식한 버건디 체크와 톤 디옌된 핑크, 볼드한 골드 글리터로 완성한 내입 세트. 급하게 내입을 다들어야 할 때나 기분 전환을 위한 셀프 네일 케어에 사용하기 좋다. 9만9천원. 문의 0502-090-0000 **by 에디터 이지현**

폴 포드 보이즈 컬렉션 켈트릭(Kendrick)이라는 남성 이름에서 따온, 시크한 블랙 케이스에 담긴 플라스틱, 알반 플라스틱 시리즈보다 작은 미니 시리즈로 선보이는 컬러 메이크업이다. 크릴 파우더, 크릴 코팅 컬러로 알반적인 코랄레보 다 한 단계 환상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단 한번의 터치로도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화사하고 건강한 보이도록 연출해준다. 2g 4만천원. 문의 02-3479-1436 **by 에디터 이지현**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이 드림 컬러 컬렉션 아이 콰트로 포근한 브라운 계열로 구성된 #02 이번 프리미에 컬러 아이셰드 팔레트.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 메이크업이다. 스킨케어, 스킨케어, 스킨케어까지 다양하게 담아 더욱 실용적이다. 특히 팔이 과하지 않은 데다 고혹적이고 은은하게 빛나 더욱 눈길이다. 3.6g 9만2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지현**

라프레리 스킨 케어 슬립 마스크 프리미어 깨끗이 세안한 후 토너로 피부를 살짝 정돈하고, 이 슬립 마스크를 내장된 브러시로 얼굴 전체에 펴 발라준다. 바르는 즉시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전혀 끈적이지 않으며, 번거롭게 씻어야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그런 다음 숙면을 취하면, 아침 세안 시 라프레리의 독자적인 카바아 피부의 효과를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 50ml 47만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이지현**

겐조 플라워워터인조 레드 에디션 꾸준히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플라워워터인조는 유니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향으로, 한결같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 코너의 제품. 특히 이번 시즌, 포피 플라워워터인조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에 주목해 유혹적인 레드 컬러 패키지의 특별 에디션을 선보인다. 50ml 10만2천원. 문의 080-344-9600 **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리프트 크림 94%에 달하는 자연 유래 성분들 함유한 새로운 버전의 리프트. 1천 년간 이어오며 프랑스에서 자라는 식물인 알팔파(Alfalfa) 농축 성분을 담아 풍부한 미네랄과 미량원소, 아미노산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인티에이징 크림이다. 50ml 21만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배지진**

글렌드보 보체 레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국내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실제 한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글렌드보 보체의 파운데이션을 이제 보다 간편하게 쿠션 팩트로 만날 수 있다. 결실 쿠션이라는 애칭을 지닌 이 제품은 글렌드보 보체의 스킨케어 성분들 풍부 함유해 피부에 매끄러운 광채를 더한다. 글렌드보 보체에서 선보이는 제품 중 비교적 착한 가격이라는 장에서도 매력적이다. 12g 11만원대.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권유진**

프레쉬 바이엔리 뷰티 인티옥시던트 글로우 워터 고유의 청량감과 매력적인 향기, 부드러운 텍스처로 완성도가 뛰어난 스킨케어는 선보이는 프레쉬의 바이엔리 미스트. 피부에 필수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바이엔리 C·E·B와 미네랄 성분까지 담았다.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바이엔리 프루트 콤플렉스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100ml 39만2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배지진**

아워글래스 배니 파운데이션 스틱 미국 세파르가 기원 꼭 사야 하는 소핑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아워글래스. 이들의 베스트셀러인 아이엔리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컨실러(카바), 파운데이션(브러), 파우더(카바)가 바깥의 정돈된 담았다. 피부에 그림을 그려듯 섹스 발라주면 돼니, 이보다 간편할 수는 없을 것. 7.2g 69만원. 문의 02-3479-1625 **by 에디터 권유진**

나스 소프트 벨벳 페이스드 피우더 인성 피우더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촉촉하면서도 보습한 피부를 연출하는 피우더.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풍치가 더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밀착력이 뛰어난 피우더를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여섯 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8g 52만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배지진**

카멜 리브스 코리아 수분 크림 한정판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반영해 선보이는 카멜의 대표 상품, 울트라 웨이브 크림의 한국 버전. 정백, 이온신장, 해태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담아 외국인에게 선물하기에도 좋다. 50ml 39만9천원. 문의 080-022-3334 **by 에디터 배지진**

디올 조이 바이 디올 Joy(기쁨)라는 이름처럼 경쾌하고 즐거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여성 향수. 디올이 20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 여성 향수는 정면으로 7개 감을 높인다. 첫 향은 싱그러움 베르가모트와 민달팽이, 꿀이 로즈 에센스와 가스민 향이 풍부한 과일 향과 블렌딩되어 활기 있고 싱그러움 향을 선사한다. 베스 에우도, 마스크를 담아 진함이 부드럽고 포근하다. 90ml 21만4천원. 문의 080-342-9600 **by 에디터 권유진**



SHOWROOM



블거리

블거리 인콘트로 다모레 링 가리는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특별한 주얼리로 인콘트로 다모레 링을 제안한다. 인콘트로 다모레 브라이덜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제품은 형태와 소재의 순수함이 더욱 돋보인다. 두 가닥의 정교한 플래티넘 브러시사가 사랑을 상징하는 보부심 패베 사탕 다이아몬드 장식을 우아하게 감싸 안으며 화려한 광채를 뽐낸다. 문의 02-2056-0171

카르띠에 레펠라씨옹 뒀 뎀디 워치 카르띠에는 모래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레펠라씨옹 뒀 뎀디 워치를 선보인다. 메종의 아이코닉한 펜더의 형태와 윤곽이



리처드 밀



빈클리프 아펠

나타냈다. 시리از면서 신비로운 우아함을 선사한다. 430 MC 칼라버를 장착했으며,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케이스가 고급스러운 엘리게이트 가족 스트랩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문의 1566-7277

IWC 빅 파이프트 어린 왕자 에디션 IWC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걸작, <어린 왕자>를 기념하는 빅 파이프트 어린 왕자 에디션을 공개했다. 브랜드의 상징인 블루 다이얼 버전으로 출시했으며, 블랙 또는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펠라톤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을 적용한 IWC 자체 제작 52110 칼라버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문의 02-6905-3682

리처드 밀 RM60-01 리처드 밀은 세계적인 레가티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한 여성이, 피

에르 카사타기와 결합해 완성한 RM60-01 워치를 공개했다. 약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며, 티타늄 소재의 베이스 플레이트와 플라티늄 백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했다. UTC 핸들과 베젤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워치를 파악할 수 있는 나침반 기능까지 갖추어 세일링과 모험을 즐기는 남성을 위한 타임피스로 추천한다. 문의 02-512-1311

빈클리프 아펠 네이처 영 마제스테 하이 주얼리 이벤트 빈클리프 아펠은 서울신호호텔 다이아스티홀에서 네이처 영 마제스테 하이 주얼리 컬렉션 이벤트를 진행했다. 화려한 젬스톤으로 이루어진 매혹적인 하이 주얼리와 함께한 우아한 모델 쇼를 비롯해 자연을 모티브로 꾸민 공간에서 팔링 갈라 디너와 프라이빗 키체일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문의 00798-852-16123



라프레리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리스 크림 슈어 프리미어 라프레리는 뛰어난 리프팅과 피밍 효과를 선사할 스킨 캐비아 리스 크림 슈어 프리미어를 출시했다. 스킨 캐비아의 시그니처 향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향기와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풍부한 텍스처가 편안한 기분과 함께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가꿔준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러, 코발트 블루로 디자인한 고급스러운 패키지도 역시 캐비아 컬렉션의 우아함을 드러낸다. 문의 080-511-6626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핑크 리본 에디션 에스티 로더는 10월, 유망한 캠페인의 달을 맞아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핑크 리본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 브랜드의 베스트 리페어 세럼인 6세대 갈색병은 유해 환경으로 손상된 피부를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 항산화 효과, 주름 개선 등 특별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해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가꿔준다. 문의 02-3440-2772

BEAUTY

FASHION

마이클 코어스 폴리스 마이클 코어스는 울기를 여성들의 잇 백으로 추천하는 '폴리스' 백을 선보인다. 다양한 사이즈와 클래식한 세이프로 선보이는 이 백은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추어 데일리 백으로 제격이다. 브랜드의 상징인 머시락 허드웨어로 아이코닉함을 더했다. 가을 룩과 잘 어울리는 97% 울로 선 보이는 폴리스 백으로 트렌디한 가을 룩을 완성해볼 것. 문의 02-546-6090

로로피아나 주빌리 캡슐 컬렉션 로로피아나는 베이비 캐시미어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주빌리'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오는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서 진행되는 팝업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컬렉션은 최고급 베이비 캐시미어로 제작된 남성·여성 컬렉션을 비롯해 액세서리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티셔츠와 클래식한 실루엣의 보머는 이번 캡슐 컬렉션을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최고급 소재에 대한 브랜드의 장인 정신을 담았다. 문의 02-3479-6088

에르메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리오프닝 에르메스는 새롭게 단장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매장을 공개했다. 파리의 건축 사무소 RDA가 디자인한 이 매장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자연의 모래빛, 유목감과 다양한 청색 계열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었다. 이곳에서는 가죽, 실크, 황수 제품을 비롯해 매력적인 컬렉션 룩을 만나볼 수 있으며, 매장 내 3개의 쇼윈도는 한국 아티스트 김중상 작가의 작품으로 특별하게 디스플레이 했다. 문의 051-745-1211

픽카부 엑스라이트 픽카부는 F/W 시즌을 맞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픽카부 백의 새로운 모델인 '픽카부 엑스라이트' 백을 출시했다. 모던하고 실용적인 호보 실루엣으로, 기존 픽카부 백에서 볼 수 있었던 중앙 막대와 중간 프래임을 가법 이층처럼 라이트하게 뒀어낸 것이 가장 큰 특징. 블랙, 모스 그린, 브라운 등 매력적인 컬러로 출시되며, 세련되고 실용적인 가방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데일리 백으로 제격이다. 문의 02-2056-9023

로저비비에 바로코 데마 로저비비에에는 바로코 양식의 화려함에서 영감을 받은 2018 F/W 컬렉션의 뉴 테마인 바로코 데마를 공개했다. 다채로운 컬러와 크기의 코랄 스톤, 그린 키보숭,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주얼 브로치 장식을 벨벳과 새틴에 금빛 실로 놓아 바로코 미술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표현했다. 클래식하면서도 유쾌한 매력을 지닌 바로코 데마는 플, 클러치 등 다양한 컬렉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370

몽클레르 4 몽클레르 시몬 로샤 몽클레르는 시즌과 세계를 초월한 8명의 크리에이터와 결합해 완성한 몽클레르 제너시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4 몽클레르 시몬 로샤' 컬렉션을 공개했다. 부티에리아 시네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컬렉션은 19세기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영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용기와 낭만주의를 재조명했다. 시몬 로샤의 풍부한 표현 방식과 브랜드의 스포티함이 만나 꽃이 핀 듯한 힐 스커트와 코트, 아플리케로 장식한 케이프를 통해 페미닌한 분위기의 컬렉션을 완성했으며, 화이트와 베이비 핑크, 블랙 등 대체로운 컬러 팔레트로 전했다. 문의 02-514-0900

브리오니 트레벨 슈트 브리오니는 캐주얼한 무드의 '트레벨 슈트'를 출시한다. 젊은 감각을 선호하는 남성을 위한 매력적인 슈트로, 몸을 감싸주는 도통한 울 소재를 사용해 환절기에 적합하며, 저지 소재의 유연함으로 장시간 착용 시에도 구김이 없어 품격 있는 룩을 유지할 수 있다. 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세련된 도시 남성을 위한 룩으로 추천한다. 문의 02-3274-6483

에르메스 스텝 에르메스는 가을 시즌을 맞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스텝을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유니크한 디테일이 특징인 이 제품은 토트백과 솔더백, 2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며 3가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화이트, 레드, 브라운 등 클래식 라인과 패치워크 또는 시아링 소재로 이루어진 스텝 라인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438-6008

살바토레 페라기오 마고 백 살바토레 페라기오는 2018 F/W의 새로운 라인인 마고 백을 론칭했다. 매끄러운 라인이 돋보이는 이 제품은 풍부한 색상과 클래식한 실루엣이 특징. 특히 타탄 블루 컬러의 마고 백은 벨벳의 터치감을 살린 부드러운 누벅 가죽으로 제작했으며, 브랜드의 심플인 간지니 로고 마그네틱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02-3430-7854

이세이 미야케 맨 갤러리아백화점 단독 매장 오픈 이세이 미야케 맨에서 오는 10월 12일, 갤러리아백화점에 매장을 새롭게 오픈한다. 이번 매장에서는 도시 생활의 다양한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실용적이고 유니크한 스타일의 2018 F/W 컬렉션을 비롯한 다양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남성을 위한 스타일리시한 감성이 느껴지는 특별한 쇼핑 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1599-0007

에르노 사티노 구스다운 레이저 에르노에서 매력적인 가을 스타일링을 완성해줄 '사티노 구스다운 블레이저'를 선보인다. 경량 구스다운 충전재로 보온성을 높여 가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겨울까지 편안하고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즐길 수 있으며, 탈착 가능한 울 니트 비브 라이너로 실용성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또 양방향 오픈 지퍼와 방수 기능으로 에르노만의 섬세한 디테일을 더했다. 문의 02-541-7235

이크네 스튜디오 피델리엔 컬렉션 이크네 스튜디오는 아이코닉한 스퀘어아웃 브라운 파펠라 베넷과 결합해 탄생시킨 '피델리엔' 컬렉션을 공개했다. 피델리엔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이크네만의 독특한 디테일을 가미해 유니크한 룩을 완성했다. 기능성 익스퍼디션 재킷에 페이크 퍼 트림과 패치를 더했고, 여성 파카의 밑단은 블러시 핑크 패널로 연출했다. 클래식한 컬러와 기능성 소재를 유머러스하게 재구성한 아이템이 돋보인다. 문의 02-542-2290

구찌 메탈릭 퀴드트 백 구찌는 2018 F/W 컬렉션에서 유니크한 감성의 메탈릭 퀴드트 백 라인을 선보였다. 1980년대 분위기에서 영감을 얻은 홀스비트 디테일과 인터락킹 G 로고의 조화로 탄생한 독특한 로고 디테일이 특징. 스퀘어 세이프의 실버 퀴드트 백과 3가지 컬러의 메탈릭 퀴드트 미니 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77-1921

로로피아나 로로피아나는 가을 시즌을 맞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로로피아나 백의 새로운 모델인 '로로피아나 엑스라이트' 백을 출시했다. 모던하고 실용적인 호보 실루엣으로, 기존 로로피아나 백에서 볼 수 있었던 중앙 막대와 중간 프래임을 가법 이층처럼 라이트하게 뒀어낸 것이 가장 큰 특징. 블랙, 모스 그린, 브라운 등 매력적인 컬러로 출시되며, 세련되고 실용적인 가방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데일리 백으로 제격이다. 문의 02-2056-9023

2018 Autumn Look with Brunello Cucinelli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10월, 품격 있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브루넬로 쿠차첼리가 제안하는 감각적인 가을 스타일링. 우아한 실루엣과 고급스러운 소재의 만남이 조화로움 F/W 룩에 주목해볼 것.

브루넬로 쿠차첼리는 2018 F/W 시즌을 맞아 멋스러운 가을 룩을 연출해줄 남성과 여성을 위한 특별한 컬렉션을 공개했다. 브랜드 고유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스타일리시한 남성을 위한 웨일즈 울 더블 브레스트드 코트는 파인 울 소재와 특별한 수직선 마무리로 고급스러운 질감이 담겨 있다. 브루넬로 쿠차첼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아 전통적인 웨일즈 울 체크 패턴의 부드러움을 극대화했으며, 보온성까지 뛰어나다. 더블 프론트 포켓과 1/2 브레스트드 클로징은 엔드러닝 메탈 버튼과 함께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한다.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버튼 디테일의 고르지 않은 표면은 핸드 브러싱 과정을 거쳐 완성했으며, 날렵한 칼라 디자인 또한 브랜드만의 섬세함이 돋보인다. 다양한 룩에 스타일링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다크 네이비 컬러는 포일한 수트나 재킷은 물론 니트웨어, 티셔츠 같은 캐주얼한 데일리로 모두 잘 어울린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벨루어 시아링 리버서



블 코트는 매력적인 가을 룩을 연출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아이템으로 제작이다. 부드럽고 광택감 있는 걸면의 벨루어 시아링 텍스처는 빛에 따라 컬러가 달라 보이게 하는 효과로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안쪽에는 고급스럽고 매끄러운 니파 가죽으로 제작해 세련된 무드를 더했으며, 양쪽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리버서블 아이템으로 선보여 날씨, 분위기, 매저하는 아이템에 따라 색다르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최고급 소재와 여성의 취향을 반영한 따뜻한 컬러로 스웨터와 팬츠 또는 롱스커트와 함께 스타일링하면 볼륨감 있는 가을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재킷 뒷면의 네크라인에는 우아하게 반짝이는 모닐리 디테일을 더해 브루넬로 쿠차첼리만의 섬세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감각적인 실루엣과 소재의 고급스러운 품격이 느껴지는 브루넬로 쿠차첼리의 F/W 룩이라면 멋스러운 가을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3448-2931



브리오니

픽카부



몽클레르



로저비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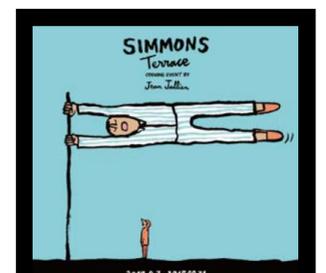


마이클 코어스

에르메스



로로피아나



시몬스 장 줄리앙 전시 개최 시몬스는 이전에 유쾌한 시몬스 테라스 오픈을 기념해 10월 31일까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장 줄리앙의 <장 줄리앙: 꿈꾸는 남자> 전시를 개최한다. 편안함에 대한 끝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시몬스와 장 줄리앙의 장과 꿈에 대한 생각이 만나, 평범을 넘어서 자유로운 드로잉을 보여준다. 무로로 진행되는 장 줄리앙의 전시와 함께 브랜드의 철학과 취향을 담은 특별한 공간, 시몬스 테라스에 방문해보자. 문의 031-631-4071

LIFESTYLE